하나됨의 외침

공안침탈 시련속 사수된 통일의지

—'92 범민족대회를 다녀와서

제3차 범민족대회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서울대에서 열렸다.

당초 개최 예정지였던 중앙대가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함으로써 서울대에서 열리게 된 이번 범민족대회는 14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2박 3일의 일정에 들어갔다.

그에 앞서 지난 4일 한남대에선 통일선봉대 발대식이 있었다.

통일선봉대는 크게 '국가 보안법 철폐 외 '주한미군 철수' 통일 선봉대로 나뉘져 각각 진주와 목포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한 후 14일 범민족 대회 개최지인 서울대로 집결했다.

통일선봉대 환영식에 앞서 진행된 개막제에서 강희남(범민족대회 위원장 권한대행) 목사는 '현재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후에 번영의 길이 될 것이다.' 라며 정권의 탄압과 분열조작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결의했다.

15일 판문점에서의 범민족회의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남측 본은 단독으로 남쪽만의 행사를 갖고 판문점 결의문을 남독하고 △남북합의서 이행 △통일방안안의 △자주적 민간대화 발전 △대일관계 해결 △범민련 조직발전을 위한 과제 등 6가지 의제를 토론하고 남측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번 범민족대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외세의 참탈을 막고, 외세의 통일방해책동 저지, 민간교류와 경제교류 도모 등을 주제로 삼아 진행될 것이나 밝혔다.

이번 범민족대회가 기존 북측 [illegible]

○ 폭우와 공권력의 무신한 탄압속에서도 투사된 열기를 식히지 않았다.

범청학련, 통일운동의 구심체로

통일논의 이견 좁힐 토론회 필요

범민족회의가 있은 후 제네 8시부터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결성식이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공동결의속에서 이루어졌다.

김명한 전대협 조직위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결성식에서 성용 [illegible] 남측대표가, 파격적 석방 △연방제 방식 통일 △일본 군국화 반대 △자주교류 투쟁 △세계 진보학생연합 과의 연대 등이다.

통일운동의 구심체로서 민간교류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고자 결성된 범청학련은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굳건히 지킬 것임을 선언했다.

대회 이틀째인 15일에는 임수경씨 석방을 촉구하는 602인 선언과 애국학생 궐이새창 열사 3주기 추모식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임수경후원회 주최로 마련된 [illegible] 제헌탈퇴는 과정에서 최만식(본교 수원총학생회장)·용성충련 의장 등 많은 학생들이 철근쇠도를 든 전경들의 무차별 구타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강제연행 되기도 했다.

이번 범민족대회는 태제준(서울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의장 및 많은 학생·시민들이 연행되고 다쳐나간 고통스러운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성과를 거둔 기간이기도 했다.

한편 대회기간중 열린 제5회 통일노래 한마당에서는 전남대 광대 노래패 '들무새' 외 '조선혼례' 가 으뜸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전국 노운협 등 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5백여명도 이날 오후 '일제 식민지 통치 시효·보상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회' 를 가졌다. 이 행사는 일본의 전쟁 책임 보상을 남북 노동자들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라는데 그 의미가 컸다.

〈특집부〉

행사일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의 주요행사와 전후 사건을 정리하여 제3차 범민족대회의 활동을 개괄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4일 정오--범민련 통일선봉대 결단식(한남대) 이후 국토순례 대행진.

▲10일 새벽3시46분경—중앙대 공권력에 의해 전람, 태제준 전대협 의장등 70여명 강제 연행.

▲13일 9시30분--범민족대회 사수를 위한 수도권지역 청년학생 한마당(고려대)

▲14일 오후3시30분—선봉대 서울대 입구 도착, 사수위치 점함.

▲14일 9시50분—'92범민족대회 개막제(1. 개회선언 2. 범민족대회기 입장 3. 대회사들). 11시—통일 선봉대 환영식.

▲15일 오전9시·· 임수경씨 석방을 촉구하는 602인 선언.

▲15일 오전11시30분—제5회 전국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 으뜸상:전남대 광대 노래패 '들무새' 외 '조선혼례'

▲15일 오후1시—정신대 할머님과의 간담회(유순만 할머니의 증언, 정신대 피해사례 보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대응)

▲15일 오후 1시30분—범민족회의(1. 개회 선언 2. 애국의례 3. 대회사 4. 의제채택 5. 7'조발제 6. 분과제택)

▲15일 오후 4시15분—일제식민통치 시효보상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한 노동자대회

▲15일 오후8시—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결성식

▲16일 오후7시—범민족대회 보고 및 전대협 결정학련 사수를 위한 시민, 학생 결의 대회(대학로)

범청학련이란…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은 남북 해외동포 청년학생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반동투쟁을 펼치기 위해 결성된 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투쟁의 집약체이다.

범청학련은 정파의 통일정구 단일화 논리에 맞서 결성된 최초의 민간문화구루로서 앞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통일운동의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92 범민족대회의 가장 큰 결실도 바로 이 범청학련의 결성이라 하겠다.

지난해 8월15일 제1회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정치회담에서 92년 범청학련을 결성할 계획을 결정한 후 그해 11월 2일 전대협의 박승희·상용승 대표와 북한의 최경철 대표로 구성되는 범청학련 해외공동 연락본부가 베를린에서 건설 되었다.

공동연락본부의 조국통일사업팀이 진행과 가운데 지난 4월 12일 범청학련 건설 준비위원회가 남북·해외에서 동시에 결성됨으로써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 공동투쟁의 장이 마련되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3대원칙으로 삼은 범청학련은 결성 선언문을 통해 ▲1민족, 1국가, 2체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방안 ▲핵무기 철거와 군축 실현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반통일 악법 철폐와 반쪽통일안사 석방 등을 주장했다.

범청학련은 만화적 청년학생 정치연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부분별 소속단체이다.

한편 범청학련은 남북 청년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들인 전대협, 조선학생위원회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고 범청학련의 강령과 규약을 인정하는 해외동포 청년학생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범청학련은 남과 북, 해외에 각각의 지역본부를 두는데 그 지역본부는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6인(의장 1인, 부의장 5인)의 의장단을 선출한다.

◆현장·보도 범서본을 찾아서

국민정서 부합 사회적 여론화에 성공

함께 여는 참교육 대중성 확보의 이음새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이하 범서본)가 전교조, 민교협, 참교육 학부모회, 전주위 등이 참여해 결성식을 갖고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은, 선전전, 가두서명, 조직서명, 단체서명, 인사서명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서본은 지난 29일 현재 약 80만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서명결과를 9월말 개원될 정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서본은 그간 서명운동의 성과를 취합하고 대중적으로 가시화하여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9월 9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결기대회' 를 개최한다.

서명운동은 가두에서 시민들과 서울지역의 60여개 대학 구내에서 4일간 실시되기도 하였는데, 학생 중 60%정도가 접가하여 현 전교조 세대의 정서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지난 29일 마지막으로 실시된 전국적 가두서명은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 청주에서는 '공무수첩' 이라는 표지를 단 차량이 멈춰서서 왜 서명을 권유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구에서는 경찰이 서명을 방해하자 시민 3백여명이 몰려와서 경찰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幕이 있었다.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로 이전까지의 단순한 상전전 형태에서 벗어난 국민서명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여러 민주단체들과 함께 대중적인 서명을 전개함으로 지역의 연대를 강화했으며 이는 대선투쟁에서 실천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에 관하여 김영만 범서본 공동대표는 "서명운동의 성과로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 사업내용으로 사회적 여론화에 성공한 점입니다. 또한 전주위와의 결합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활동력을 증가시켰고 이를 통해 전교조 하반기 사업전망을 밝게 예측할 수 있는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1백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범국민 결기대회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범서본은 이 [illegible]갖고 [illegible]에 청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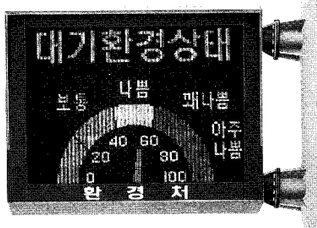
한편, 범서본은 29일 김영만 공동대표와 고은수 집행위원장, 박거용 집행위원 세명의 이름으로 단대부고 복직교사 임용취소와 관련하여 조완규 교육부 장관을 집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고발장의 내용은 단대부고가 김경욱, 조성순 두 교사를 임용 발령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여 이를 취소하게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적 인사권을 침해하였고 두시람의 채용이 취소됨으로써 한림에 명시된 근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수정記者〉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 주한

이주한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후 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 참은 유난히 서둘러야만 했다.
통근버스가 시창앞을 지나칠 무렵,
여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문…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 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번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 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때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씁씁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좋은 환경, 좋은 차
HD 現代自動車

창사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3